| 불자 세상보기 |

자녀에게 필요한 건 명품 아닌 사랑



우인보
영석고 교법사

초등학생 책가방이 112만원 달해
부모 · 친척 고가 상품 구매해 선물

'신종 등골브레이커' 신조어 나와
빈부 격차와 박탈감 대한 우려도

부처님이 라훌라에게 물려준 것은
재물 아닌 자유를 위한 출가의 길
이는 최고의 애정표현이자 가르침
명품 책가방이 좋은 교육 · 사랑일까

2월 16일 우연히 조계사 경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재)아름다운동행에서 주최하는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행사를 보게 되었다. 책가방! 필자가 어린 시절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에 책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깨에 때론 허리춤에 둘러메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

이후 관련 인터넷 기사를 훑어보다가 '초등생 책가방이 112만원…매장 갔더니 '품절' 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를 살펴보니 도시락 가방이 97만 원, 아동용 코트가 200만 원이었고, 이런 고가의 상품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와 친척들이 아낌없이 사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아이들을 부모의 등을 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러뜨릴 정도로 힘들게 한다는 뜻으로 '신(新)등골브레이커' 라 일컫기도 하고, 고령화 ·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부모 및 친척들을 '식스(6)포켓, 에잇(8)포켓' 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학 관점으로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베블런 효과' 라고 일컫기도 한다. 중국의 '소(少)황제, 소공주 신드롬' 에 빗대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부모의 절대적인 지지와 과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는 의견도 있다.

경제적 부와 빈의 불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씁쓸한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유치원생들. 이들을 위하여 하루 10시간 이상 육체 ·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그것마저도 모자라 퇴근 후에도 수업 교재를 작성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한 달 월급이 책가방 한 개 가격만도 못한 분들도 있다.

그러나 영화 한 편 출연에 수십 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위해 시작한 운동으로 수백 억 원의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바람직한 사회 건설의 잣대로 냉정히 바라보면 유치원 교사,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들 중 누가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며 바람직할까?

재화의 소유를 행복으로 착각하고 사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문득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법구경〉 '인연담' 에는 라훌라의 출가 동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직전에 태어난 아들 라훌라는 어머니 아쇼다라 공주의 지시에 따라 부처님께 가서 재산 상속을 청한다. 1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청한 것이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부처님은 유산을 물려주었다. 부처님이 아들 라훌라에게 물려준 유산은 바로 아들을 출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산은 가장 값진 보배로써 세속의 일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물이 아니었다. 영원한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을 안내한 것이었으며, 열반에 이르는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르침이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이제 초등학생으로 출발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우리 부모가 사회가 보여줘야 하는 사랑의 표현은 명품 책가방이 아니다.

아이가 진정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따듯한 마음과 지속적인 깊은 관심으로 돌보는 것이다. 관심과 사랑은 명품 가방 사주기보다 어렵지만 중요하다.



발언대
이찬수 서울대 HK연구교수

훼불 복구 도운 게 '우상숭배' 라니

서울기독대가 지난 2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신학과 손원영 교수의 파면을 결정한 표면적 이유는 기독교 교리에서 금지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었다. 손 교수는 지난해 김천 개운사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훼손한 개신교인을 대신해 사과하고 불상 재건립 비용을 모금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화합은 중요하다. 물론 교리에도 맞지 않는데, 화합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리조차 사랑과 화합을 이야기 하는 것이 문제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난 종교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정리해 준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여러분도 자비로워라' 고 하는 것이 그 가르침의 근간이다.

하지만 고대 유대교의 율법인 십계명의 우상숭배 금지 조항, 즉 2500년 전 언어에 얽매여 지금의 사회에 적용하려는 일부 개신교계의 문제점이 있다.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생겨났을 때를 돌아보면 당시 유대민족이 자민족 중심 사회로 가면서 민족의 통합이 중요했다. 그로 인해 훼방하는 다른 표상이나 이념을 신봉하지 말라는 뜻이 섞이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초월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이를 보면 현재 그 형상 자체가 '신' 이라는 고백 형태가 아닌 이상 우상숭배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신약성서로 가면 '우상숭배'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탐욕' , '욕망' 자체를 숭배하고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형식의 표현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우리가 간과하는 욕망이 오히려 우상에 가깝지 않을까.

이번 손 교수의 파면을 두고 신학대학조차 그런 구분을 하지 않은 채, 형상 자체가 신인 것처럼 생각해 '왜 우상을 돕느냐' 고 판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반신앙적이다. 이는 신학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다.

오늘날의 신학과 신앙은 시대성이 있어야 한다. 요즘 시대에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해야만 나 스스로의 정당성, 정체성도 타인에게 존중받는 시대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문자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 잡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늘날 '종교간 대화' 는 신앙의 근간으로 들어가 있다. 손 교수의 파면을 보며 많은 신학자들이 공분하는 이유가 그 이유다.

정치적으로 파면을 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먼저 이런 신앙의 근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자주의적 사유를 벗어나야 한다. 당시의 문자가 지향한 이유를 오늘날에 해석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유일신 전통에서 문자주의적 사유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경전이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언어는 사람들의 의사전달 수단일 뿐이다. 언제나 해석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재해석이 지속되어야 한다.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과제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종교는 경직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社說

항일운동 재조명, 풀뿌리 관심부터

3.1운동 100주년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기념사업과 3.1운동 당시 힘을 보탠 종교계에서 다양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교계만 유독 미진한 상황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천도교는 다방면서 연구와 자료집 발간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신교계는 감리회가 지난해 국고를 지원받아 인물단체연구사업을 실시, 조만간 성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최근 세미나를 통해 1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불교계는 연구 · 재정난에 빠져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국고보조금 증액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항일독립운동불교선양사업회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도 마련하지 못했다.

불교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분명하다. 관심부족이다. 물론 산중서 암암리에 항일운동을 펼쳤던 불교계 성격상 사료가 많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은 선조들에 대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각 사찰과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적 지원, 이를 통한 불자들의 풀뿌리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스님과 불자들이 항일운동을 펼쳤던 교구본사들을 중심으로 대중의 인식을 높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일반법회에서 불교계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연구자들을 지원해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에는 불교계만의 여법한 성과를 내야 한다.

뜻 깊은 '출가 · 열반주간' 보내자

올해 3월 5일(음력 2월 8일)은 부처님 출가재일이고, 일주일 뒤인 12일은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이다. 불교계는 이 일주일을 '출가 · 열반재일 정진 주간' 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수행프로그램과 법회 등을 진행한다.

출가는 싯다르타 태자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영원한 자유를 위해 길을 나선 날이다. 출가수행자들이 행자시절 꼭 읽는 〈발심수행장〉에는 "중생들이 불타는 집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계를 돌고 도는 것은 탐욕을 버리지 않아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출가는 화택(火宅)에서 나와 스스로를 구함이다.

열반은 정각에 이른 부처님이 40년에 이르는 설법을 끝내고 적멸에 이른 것이다. 출가가 수행의 시작점이라는 반대로 열반은 수행의 완성점에 있다. 〈열반경〉에는 "자비로운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노여움을 끊으며, 자기를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을 끊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출가와 열반 사이에는 수행 정진이 있다. 부처님도 출가 이후 치열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고, 대중들을 설법하고 교화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열반에 든다.

올해에도 '출가 · 열반주간' 을 맞아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조계사는 발심수행장 강의 · 요가 · 참선 · 108배 등을 진행하며, 부산 소림사는 참회산림, 혜원정사는 어린이들에게 출가 인연을 맺어주는 유발상좌 수계식을 연다. BTN불교TV도 다큐멘터리와 극장 애니메이션 등을 특집으로 편성하고 있다.

〈화엄경〉은 "처음 발심한 보살이 곧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의 발심이 나를 정각(正覺)에 이르게 한다. 출가부터 열반에 이른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불자가 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